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2007 제8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78 7427 FAX 02 778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5. 6 발행인 : 한홍순

## ● 한국평협 올해 첫 상임위원회

5월 26일, 27일 전주에서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주제 세미나와 함께 열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오는 5월 26일과 27일 이를 동안 올해 첫 상임위원회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전주교구 새 교구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평협 40주년(2008년) 준비위원회 구성과 한국천주교 교육실태조사 계획 등을 다루며, 회의에 앞서 전주교구장 이병호 빙천시오 주교와의 만남의 시간(특강)을 마련한 다음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 교회사에서 본 평신도사도직”이

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발제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조광(한국사) 교수가 맡고 김정희 교수(전남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노길명 교수(고려대, 사회학)와 김영수 신부(전주교구 용머리본당 주임)가 지정토론을 맡고, 한국 꾸르실료 주간 심재기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국어학)가 사회를 맡는다.

이번 상임위원회에는 한국평협 회장단과 각 교구 평협 회장단(각 3인), 상임위원 단체장(8명), 한국평협 분과위원장, 전주교구 평협 위원들이 참석하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총무 민병덕 신부) 위원들도 함께 한다.

## 싣는 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마리아 사업회(마리아 사업회)
-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 ◎ 동정 · 세계 교회 소식

## ● 사회사도직연구소, 평신도 교육 실태조사 의뢰 받아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 요한)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로부터 한국교회 평신도교육 실태조사를 의뢰받아 조사 준비를 착수했다.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대교구청 소회의실에서 염수정 위원장 주교 주재로 열린 정례 회합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조사계획안을 마련해 5월 26일 전주에서 열리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음화를 위해서는 직접 선교 못지않게 신자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2000년을 전후로 열린 각 교구 시노드에서 거론됐다. 2005년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도 몇 차례 회의에서 평신도 교육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2006년에는 1987년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펴낸 ‘평신도 교육에 관한 12가지 제언’이 소개됐고, 마침내 2007년도 사업으로 ‘평신도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해 춘계 주교회의 총회가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향후 신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얻게 된다.

사회사도직연구소는 금년 말까지 이 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각 교구와 주요 본당들의 주보, 홈페이지 열람,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수집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문현조사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 ●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

한국평협, 4월 11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고위 성직자·평신도·외교사절들, 시복·시성을 기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 4월 2일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추모하며 그분의 시복·시성을 기원하기 위한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제 1부 추모식과 2부 문화제로 진행됐다. 이날 문화제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해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 조규만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대선 교무, 주한 외교사절단장 알프레도 일코르타 아르헨티나 대사와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비롯한 30여명의 주한 외교사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가톨릭국악합창단이 공연하

절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 1부 추모식에서 염수정 주교는 인사 말씀을 통해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런 추모행사를 개최한 것은 교황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동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루 속히 시복 시성이 되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 정진석 추기경, “사랑, 곧 생명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주된 관심사”

정진석 추기경은 추모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화해와 통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 땅을 방문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회고하고 “교황님은 ‘성직자의 진정한 의무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데 있다.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를 달려가야 하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당신이 직접 공동체와 나라를 찾아가는 사목을 강조하셨다”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즉위 후 첫 번째 회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천명한 사실을 지적한 정추기경은 “이처럼 교황님의 관심은 교회내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세상을 향해 항상 열려 있었

으며, 특별히 교황님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하셨다”고 언급하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세대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 추모사를 읽고 있는 정진석 추기경 극복하기 위해 서 상대방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귀중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범을 보이고, 그 정신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수환 추기경, “사랑의 ‘새 계명’을 살아야”

김수환 추기경은 조규만 주교가 대신 읽은 추모사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바로 주님의 수난을 몸소 사신 분이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음을 잘 아셨기에 끝까지 그 고통을 지고 가셨다”고 말하고 “사랑의 교황님, 예수님처럼 온 세상 모든 이를 사랑하신 교황님, 그런 사랑으로 그분은 세상 어디든지 찾아 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지적했다.

김추기경은 “이렇게 순례자가 되신 교황님은 두 번이나 이 땅, 한국을 방문하셨고 ‘순교자



의 땅’ ‘순교자의 땅’ 하시며 순교자의 피에 젖은 이 땅을 친구하셨으며, 우리말로 ‘벗이 멀리서 오니 어찌 아니 기쁘랴!’라는 말씀으로 인사하셨다”면서 1984년 첫 방문 시에는 103 위 순교복자 시성을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를 떠나 여기서 거행했고, 두 번째 세계 성체대회 때는 미사 전부를 우리말로 바친 사실을 상기 시켰다. 김추기경은 “그러기 위해 전혀 생소한 우리말 읽는 것을 틈틈이 수없이 연습했으며, ‘찬미예수’ ‘감사합니다’ 두 마디는 늘 외우고 계셨고 한복차림의 한국 신자들을 만나 시면 먼저 이 두 마디로써 인사하셨다”면서 “이토록 교황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이를 사랑하셨으며,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교황님도 그렇게 죽기까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셨다”고 회고했다.

김추기경은 “그분은 참으로 성인이었고, 우리는 성인 교황님을 모셨던 복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산토 수비토(Santo Subito!)’ ‘즉시 성인품에’ 올리라는 수백만의 사람들, 젊은이들의 외치는 장례 미사에서의 함성이 아직 귓전에 생생하다”면서 “이제 우리도 교황님을 본받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그러면 교황님과 함께 우리도 성인이 될 것이며, 이것이 수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남기신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하신 이 사랑의 삶과 그 믿음은 교황님을 우리가 추모하는 참된 뜻일 것”이라며 교황을 기렸다.

## KNCC 총무 권오성 목사 등도 추모사

권오성 목사와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리 대주의 추모사(파올리스 참사관 대독)가 이어졌다



▲ 추모사를 하는 KNCC총무 권오성 목사

으며, 지난 4월 2일 로마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2주기 추모미사 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강론을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이며 평협 담당사 제인 민병덕 신부가 낭독했다.

제 2부에서는 “대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반열에 올리자”는 주제로 임마끌라따 무용단의 ‘눈물’에 이어, 계성여고 2학년 김아인 학생이 ‘돌아가신 교황님께 올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 ‘침묵의 해안’을 텔런트 노현희 씨가 낭송했다. 또한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과 나정신의 무대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추모하는 신달자 시인의 자작시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지금 여기 계시나이다” 낭송에 이어 바리톤 이준석의 독창(피아노 김소연)과 가톨릭국악합창단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연을 갖고 한홍순 평협 회장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이날 추모행사는 막을 내렸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미사 베네딕토 16세 교황 강론(요약)

2007. 4. 2. 베드로 광장

2년 전 지금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사랑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 미사성제를 거행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 하느님께 그분을 27년이나 되는 동안 아버지요 신앙의 확고한 지도자로, 열렬한 목자이며 용감한 희망의 예언자로, 하느님의 사랑의 지침 줄 모르는 중인이고 열정적인 봉사자로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해 다시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사성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순례자 여러분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토록 각별히 사랑하신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여기 이탈리아와 세계 각지에서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황님의 경건한 선종 2주기를 우리는 지금 묵상과 기도하기에 참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는 성지주일을 지내면서 성주간을 시작하였고 이제 전례는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다시 살게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를 베타니아로 데려 갑니다. 복음의 이 대목에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행동이 있습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어느 틈엔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린”(요한 12, 3) 것입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린 행위는 제 전임 교황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반향을 일으키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 무제한으로 남김없이 보여 주신 빛나는 중언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 사랑의 ‘향유 냄새가’ ‘온 집 안에’, 곧 온 교회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요한 12, 3). 그렇습니다. 그분 곁에 가까이 있던 저희는 그 향기를 맛보았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만 멀리서 그분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티와 교황님의 그리스도 사랑은 말하자면 너무나 굳세고 강렬하여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넘쳐흘렀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그분께서 선종하셨을 때 보여 준 존경과 경의와 애정은 어쩌면 바로 이 점을 웅변으로 중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황님께서는 사목 직무를 열과 성을 다해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고 마침내 임종의 고통을 겪으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으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참으로 자신의 ‘전부’ 이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카를 보이티와의 생애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단지 하나의 낱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분께서는 고통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제로서 그리고 주교로서, 그리고 특히 교황으로서 그 분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요한 21, 19, 22)라는 그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 들이셨습니다. 특히 조금씩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병세와 더불어 그 분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찬 희망 속에 그 분의 수난을 생생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황직은 ‘아낌없음’이라는 특징을 띠고 아낌없이 무제한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수행되었습니다. 1978년 10월 16일 의전장에게 “스승님께서 여기 계시고 당신을 부르십니다(Magister adest et vocat te)”라는 말을 통해 그분에게 명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님께 대한 신비스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과연 무엇이 그분을 움직였겠습니까? 2005년 4월 2일 스승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 가시려고 직접 그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다시 한번 용감한 마음으로 즉시 대답하시어 낮은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가게 해 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S. 지비쉬, 카롤과 함께 한 생애, 227쪽 참조).

그분의 유언서의 여러 초고들이 증명하듯 그 분께서는 오래 전부터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개인 경당에 오래 동안 머물며 그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을 온전히 그 분 뜻에 내 맡기셨고 마리아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Totus tuus)”이라고 되뇌이면서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날,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전야에 바로 요한복음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봐 드리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 기도를 전부 바치고 시간의 전례에 참여하고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도 중에 선종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 품안에서 잠드셨습니다.

한편 그분의 시복 절차가 신속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그 분의 생애와 덕행과 성덕의 평판에 관한 교구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는 특히 그분에게 알맞은 직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제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섬기도록 그분을 부르셨고 그분에게 자신의 교구에서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점차 더욱 널리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화답송은 신뢰로 가득 찬 말씀을 입술에 올려주었습니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교회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바라라. 네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시편 27, 14)”.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희망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이러한 권고를 마음에 새기며 미사성제를 계속합시다. 사랑하는 교황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좌우명이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님께 바치는 도정에서 그 분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정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형제요 벗인 교황님을 성모님의 손에 맡겨 드리며 교황님께서 하느님 안에 편히 쉬시며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달자 시인 추모시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지금 여기 계시나이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등을 잊고 벼랑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2005년 4월 2일 9시 37분

그 시간 세계는 순간 빛을 잊은 듯 기우뚱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언어가 다른 세계인들이 마음이 통하는 흐느낌으로

사랑이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카를 보이티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없는 세계에 밤이 오고 아침이 와 우리는 지금 2주기라는 거룩한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은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완전히 가셨는데도 완전히 남아 계신 분  
분홍빛 살결의 순정한 미소가 광활한 별로 빛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모자람을 그리스도로부터 구하시는 분

이마에 눈빛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없는 분

그리스도가 넘치던 분

우리는 지금 더욱 분명한 그분의 신앙가치를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가치는 무너지고 전쟁과 폭력이 출렁거리고

세계평화는 한 잔의 물보다 부족합니다

인류를 하나의 사랑으로 묶어 하나의 꽃다발로

하느님께 바치셨던 그 사랑 그 평화 그 열망의 지도력은

아직은 성숙한 나무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억합니다

1984년 5월 3일 저희 나라 땅에 입을 맞추신

그 순간의 가슴 설렘은 지금도 선연히 지속됩니다

벗이 있어 먼 나라를 오셨다는 그 감동의 말씀에서

아십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가슴 떨렸습니다

뵙기만 해도 편안하고 다정하고 유머가 넘친 시인이시여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네 네 교황님 저희들도 행복합니다

먼저 자신 그리스도의 길을 저희도 가오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햇빛처럼 별빛처럼 온 몸으로 강복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하느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 고통의 가시관  
을 스스로 머리에 쓰신 분이여

대퇴골 골절 어깨골절 무릎 관절병 거기다  
파킨슨씨병까지

엄청난 병고의 고통을 믿음하나로 다스리  
신 분이시여

그 엄청난 고통의 계단을 오르내리시며 스  
스로 빛을 잊지 않으셨던

초월적 힘은 지금 온 세계의 교회에 빛으  
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하나도 모두 바치셨던 실  
천적 의지는

여기 지금 큰 별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걷게 하고  
벼랑위에서 거뜬히 일어서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몸으로 사르신 신앙의 횃불에 저  
희가 눈을 뜹니다

연한 아기 미소 같은 영혼의 미소를 봅니  
다

저기! 저기!

흔란의 세계정세에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  
는

교황님의 손끝을 어리석은 저희들이 제발  
따라가게 하소서.

눈멀고 귀면 저희들이 친란한 빛의 소리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지금 여기 계시  
나이다.

## ● 각 교구 평협 회장들, 교황대사와의 만남



▲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대주교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각 교구평협 회장들

한국평협은 지난 4월 20일 낮 서울 명동 로  
얄호텔 21층 사파이어룸에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체  
릭 대주교의 회갑을 축하하는 모임을 겸한 이  
날 오찬에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  
원장 염수정 주교와 주한 교황대사관 참사관  
스테파노 데 파올리스 몬시뇰, 한국평협의 한  
홍순 회장과 이관진 고문, 오덕주 부회장과 각  
교구의 평협회장(또는 부회장), 서울대교구 평  
협 회장단 등 23명이 참석해 친교를 나누는 시  
간을 가졌다.

이날 한홍순 회장은 “교황님을 대신해서 우  
리 한국교회를 위해 현신, 봉사해 오신 교황대  
사님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고 축사한 데 이어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답사를 통해 “지난 16  
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80회 생신을 맞  
이하셨고, 어제 19일이 교황피선 2주년이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 깊은 모임이 됐다”고  
말하고, 스위스 산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  
신은 언제나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하고 먼 나라를 동경하며 자랐는데, “사제가  
되고 교황청 외교관이 되면서 이 꿈이 이뤄졌

고, 특히 산이 많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한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하느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 ● 우리성가작곡공모 41편 접수

지난해 한국평협이 실시한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입상작에 대한 작곡공모를 통해 지난 4월 30일까지 모두 41편의 작품이 접수 됐다.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는 저명한 평신도작곡가 4인에게 의뢰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평협은 6월 중에 시상식과 함께 창작성가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평협 주최의 주요 강좌들에 대해서는 녹화하여 동영상자료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 할 계획이다. 서울평협은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 서울대교구 올해 선교포럼 시작

서울평협은 지난 3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본당 선교분과위원장과 위원, 레지오마리애 회원 등 선교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신자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07년도 첫 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서울평협 선교분과위원회(위원장 김길성 가톨로)가 준비한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교구 고척동성당 주임인 김정남 신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교정책과 재정 부족 등의 선교활성화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선 본당에서 주일학교보다도 낮은 선교 관련 재정 배분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신부는 또 모든 기관과 본당이 복음화 2020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 신심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 선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본당 사제와 수도자의 임기의 탄력적 운영, 성당 담장 없애기와 주민을 위한 휴식처 제공, 어린이 집 설치 등을 제안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평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서울평협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www.clas.or.kr](http://www.clas.or.kr))를 신설해 그동안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홈페이지 ([www.clak.or.kr](http://www.clak.or.kr)) 내에서의 셋방살이를 끝냈다.

홈페이지는 서울평협의 소개와 함께 임원과 활동을 소개하고, 게시판과 자료실로 구성했고, 홈페이지 내 모든 문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평신도학교 등



▲ 제1회 선교포럼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선교포럼은 복음화 2020 운동에 따라 2006년  
도부터 개설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  
두 5회 개설할 예정인데 7, 9, 11월에는 각각 동  
서울, 중서울, 서서울 지역에서 실시하고 12월  
에는 총 정리하는 형태로 명동에서 실시한다.

## ● 제 4회 가정세미나



▲ 가정세미나 참가자들이 찰흙으로 자  
신의 모습을 빚고 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  
직협의회는  
지난 3월 19  
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  
층 대강당에  
서 제 4회 가

정세미나를 열고, 창조된 자신의 본모습을 찾  
기 위한 작업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평협 가정분과(위원장 오현희 체칠리아)  
가 마련한 이날 모임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  
은 장형란(레오,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  
부 담당) 수녀의 진행에 따라 각각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자신  
의 모습을 찰흙으로 빚었다.

창조 안에 나타난 가정 생명을 주제로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  
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묵상과 함께 직접 자신  
의 손으로 찰흙을 만지는 작업을 통해 하느님  
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우리 모두가 하  
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소중한 인간이라는  
고백을 통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고, 밝게 살

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치기 직전에는 자신이 수태  
된 날을 알 수 있는 카드를 선물로 받고, 자신  
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실수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 ● 민족화해학교 개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는 교회의 노력  
과 그 현황을 알고, 참여해서 일 할 수 있는 봉  
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  
직협의회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와 공동주최로 4월 13일부터  
6주간에 걸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에서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했다.

민족화해학교는 지난 1995년부터 6년간 민  
족화해위원회에서 진행해오다 중단됐던 교육  
으로 중단 6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으  
로 서울평협(민족화해분과위원장 유호열 바오  
로)과 함께 개설했으며, 현재 약 80여명의 수  
강자들의 참여로 열띤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화해학교는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 화  
해와 일치’(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  
총장), ‘한국 근대사를 통해 본 북한’(신복룡,  
전국대 교수),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장궁  
선 신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내가 본 북한 사회’(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사무국장),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최영화, 새터민), ‘통일을 위한 신앙인의 자  
세’(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파견미사의 차례  
로 진행되는데 일방적인 강좌형태에서 벗어나  
강의 앞뒤로 한국 근대사, 북녘 종교와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알차게 진행된다.

##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개설



▲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 강의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공의회과정’을 개설해 공의회문헌 전반을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의회과정’은 모두 2학기 30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첫 강의는 지난 3월 2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의 문헌을 차례대로 다루는데 가톨릭대학교 교수진으로 강사를 구성해 권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의 의미와 역사는 물론 공의회 문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서울평협(교육분과위원장 권길중 바오로)에서는 ‘공의회과정’ 전과정을 녹화하여 홈페이지([www.clas.or.kr](http://www.clas.or.kr)) 동영상자료실에 올려놓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는 수강하고 있는 이들의 복습과 함께,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공의회과정’의 첫 강의는 김성태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가 ‘공의회 의미와 역사’에 대해 강의했고,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서울지역 대리)의 ‘개시현장’, 김영국 신부(서

울대교구 청소년국장)의 ‘교회현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170여명의 수강생으로 매주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교육에 대한 평신도들의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본당 사목협의회장 연수

서울대교구 본당 사목협의회장의 친교와 정보교환, 본당의 쇄신을 위한 사목협의회장의 역할에 대해 나누기 위해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5월 18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꾸르실리오회관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평협 지구분과(위원장 최원규 사무엘)가 준비한 이날 연수에서는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의 강의(본당공동체 활성화와 사목협의회장 역할), 민병덕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의 강의(본당 사목협의회 조직구조와 활성화에 대한 제안)와 함께 토의, 전체회의, 파견미사 등으로 진행된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최영수 대주교 대구대교구장 착좌, 조환길 보좌주교 서품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용기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율석 마태오 신부)는 4월 30일 대구 성 김대건 기념관에서 대구대교구가 주관한 최영수 요한 대주교의 교구장 착좌식과 조환길 타대오 보좌주교 서품미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구장 착좌식에 이어 주교 서품식, 축하식,

그리고 축하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40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대구평협 임원들은 새 교구장과 보좌주교 탄생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구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두 주교와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다.



▲ 최영수 대주교와 조환길 주교가 축하식 도중 축사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 가톨릭신문)

### 이용기 평단협 회장 축사

대구대교구 평신도단체협의회 이용기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선임 교구장을 보필하신 경륜과 모든 이를 포용하는 인격과 지도력에 있어 탁월한 새 교구장 최영수 대주교를 모시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교구의 최고 목자인 최 대주교님을 교구장으로 모시고 교구민 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찬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해 새로운 세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어서 조환길 보좌주교에 대해 “훌륭한 목자되시길 기도하겠으며,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짠맛을 잊지 않는 소금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눔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화하는 데 함께 해 줄 것”을 청하기도 했다.

이회장은 또 하느님의 도구로서 21년간 제 8대 대구대교구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한 이문희 대주교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여생에 편안과 위안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본당 평협 임원 연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영근 라우렌시오, 담당사제 최광조 프란치스코 신부)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본당 평협 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7일 선교 연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 청주교구 본당 평협 임원 연수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총무 연수, 4월 14일 전례 연수를 실시했으며, 청소년과 교육, 가정 성

화와 행사 담당자를 위한 연수 등 모두 5회에 걸쳐 교구 내 전 본당 평협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청주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노드를 뒷받침하고, 교구 평협과 본당 평협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본당 평협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선교 연수

3월 17일 본당 선교부장을 대상으로 한 선교 연수에는 선교부장·차장과 레지오 간부 등 89명이 참가해 교구장 사목실천 방안 중 하나인 50 실천운동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최광조 프란치스코 신부가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과 이에 따른 실천 목표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선교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총무·재무 담당자 연수

본당 총무와 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3월 31일 연수에는 모두 57명이 참가해 본당 예산 운용에 대한 강성호 안토니오 교구 관리국장 신부의 특강을 들었다. 또한 ‘청주교구 50년사’ 편찬을 위한 본당사 집필과 원고 제출에 대한 협의와 본당 평협 회칙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교구 평협과 본당 평협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토론도 있었다.

## 전례 연수

4월 14일 열린 본당 전례 담당자를 위한 연수는 전례부장·차장 외에도 성가대와 해설자 및 독서자들까지 참여하여 12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전례법전 제 4권’을 전례 교육 자료로 이용한 신성근 야고보 신부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강의를 통해 전례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상세하고 재미있게 풀이해주었다. 늦은 시간까지 연수에 참가한 수강자들은 오랜만에 듣는 전례 연수에서 그동안 알고 싶었던 문제들을 강의와 질의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으

며, 앞으로도 자주 전례 교육이 실시되기를 희망했다.

## ● 교구 활동단체장 회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4월 28일, 교구 활동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19개 교구 활동단체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교구 50년사 원고 작성 방안에 대한 협의와 시노드 본회의 개최에 따른 참여 일정 소개가 있었고, 단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희망했으며, 매년 5월, 11월 등 2회의 회의를 추진하는데 동의했다. 최광조 프란치스코 교구 사목국장 신부는 “단체별 고유 영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단체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각 단체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 각 단체별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했다.

## ● 빈첸시오회 정기총회

빈첸시오회 아 바오로회 청주교구 이사회(회장 조광호 벨라도, 담당사제 김상수 블라시오 신부)는 3월 3~4일 교구 연수원에서 2007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활동을 결산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 제11회 가톨릭 청주교구 사진가회 회원전

가톨릭 청주교구 사진가회(회장 장광동 바오로, 담당사제 김재정 요한 신부)는 제 11 회 회원전 열어 1년간 활동한 작품을 선보였다. 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진가회는 1997부터 해마다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다.

4월 14~17일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 제 2소전 시설에서 청주 시민들에게 소개했고, 4월 21~24일에는 충주시의회 로비 전시실에서 충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 제 4차 실버 꾸르실료

청주교구 꾸르실료(주간 구본옥 율리안나, 담당사제 전명수 아브라함 신부)는 제 4차 실버 꾸르실료 교육을 4월 26부터 29일까지 실시해 57명의 새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꾸르실료는 2005년 1차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단체평협 임원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사제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는 4월 21일(토)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구단위 21개 단체의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가졌다. 평신도 단체인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단체의 고유한 목적과 활동 사항들을 소개하고 하



▲ 단체들의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모습

느님 나라 건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황양주 신부는 “왜 이 단체 활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자주 자신에게 던져보고, 호기심의 만족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활동이 아닌 단체 안에서 기쁘게 활동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 여성교육장 개강식과 미사

지난 3월 5일 광주가톨릭센터에서는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미현, 담당사제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교육장의 개강식과 미사가 교육생 50여명이 참석한



▲ 주부들을 위한 교육장 개강식

가운데 봉헌됐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은 지난 1989

년 3월에 한글반 강의를 시작으로 18년 동안 여성들의 배움터로서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고, 현재는 한문반과 여러 단계별로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해준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광주대교구 사무국장 신부는 “배워보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찾아와 선택하심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하며, 학문을 닦는다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고, 단순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보다는 세상을 살아 가는데 근본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의미로 동료 간 관계의 조화를 잘 이루어 알찬 열매를 맺으 시길 바란다”는 요지의 격려 인사로 힘을 실어 주었다.

### ● 지구평협 활동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각 본당의 새로 임명된 사목협의회 임원 및 단체장을 대상으로 임원 연수회를 각 지구별로 실시하였다.

연수회는 교구 사목국장 황양주 신부의 ‘삼 위일체 리더쉽’ 강의와 각 분과별 토론과 발표로 이어졌다.

북부지구 3/11 200명 / 문흥동 성당

광산지구 3/18 150명 / 월곡동 성당

여수지구 4/22 100명 / 동산동 성당

서부지구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 4/ 22일  
500명/ 평생교육원 운동장



◀ 광  
산 지구  
연수회

###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피정세미나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광주관구협의회(회장 박영석 담당사제 김민수 디모데오 신부)는

전국 협의회 사순절 대피정 세미나를 3월17일 (토)-18일(일)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주관했다. 이번 피정세미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14)를 주제로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93명의 신자 회원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회장단 장호완(베드로, 전국), 임경수(대구관구), 박영석(광주관구)의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는 묵상과 기도, 성체강복과 성체조배 그리고 4차례의 강의와 파견미사로 이루어져 모처럼 전국에서 함께한 교수들에게 매우 의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피정 세미나 참석자들

미 있는 행사가 됐다. 특히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첫날 시작모임에서 교육 사도직을 담당하는 전국의 교수들에게 대학교육현장에서 ‘진리의 광채’ 역할을 담당하라는 말씀으로 환영해주었다. 공식행사 후 서울대교구에서 온 교수회원들은 광주 근교의 명소인 담양 소쇄원과 가사문화권을 돌아봤다.

강의내용을 보면 “회개”를 주제로 김민수 디모데오 신부(목포가톨릭대 총장, 성서학박사)가 첫 강의를 했으며, “다산의 수양론 ; 유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접목” 이란 주제로 최기섭 세례자 요한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 동양철학박사)가 강의했고, “과르다니의 인성교육

이해 및 적용”을 김웅자 콜롬바 교수(가톨릭 대, 교육학박사)가,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존재”를 박홍 루카 신부(서강대 이사장, 영성신학박사)가 각각 강의했다.

### ● 의사회·간호사회 피정

광주대교구 의사회(회장 문덕진 비오, 담당 사제 신영철 베드로 신부)와 간호사회(회장 이숙자 요안나, 담당사제 신영철 베드로 신부)는 3월 18일 11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까리따스 교육관에서 “회개하라”(황성옥 모니카 수녀)와 “가톨릭 의료공동체의 정체성과 영적 돌봄”(정무근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예수회)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듣고 피정을 열었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전주교구 70주년 기념행사와 새 교구청 축복식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 바오로, 담당사제 조정오 요셉)는 4월 13일 전주교구가 거행한 자치교구설정 70주년 기념미사와 새 교구청 축복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행사에 참여한 신자들과 사제단은 교구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숙원인 새 교구청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일치와 나눔으로 하나되어 지역사회에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 날 것을 되새겼다.

이날 경축 기념 미사는 오후 2시 교구청 행정청사 앞에 마련된 중앙 제대로 200여 사제

단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주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생각이 한데 모이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과 같다며 교구 70주년과 교구의 중심인 새 교구청 마련을 계기로 복음화를 위해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고 교구민들에게 당부했다. 강론 후 이 주교는 제대 주변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교구청을 축복했으며, 신자 대표들은 봉헌 때에 교구 설정 70주년 기도문을 봉헌했다.

미사에 이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열린 축하식에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새 교구청 마련을 계기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실천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 또 지난 3월 몬시뇰에 임명된 유장훈 몬시뇰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장의 주교에 이어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은 한국의 첫 자치교구인 전주교구의 70주년은 한국 교회전체에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축하하고 새 교구청이 복음화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식에 이어 행정청사 앞에서 교황대사를 비롯한 내빈들은 기념식수를 했다.

전주시 남노송동 옛 전주공업대학 자리 1만 2000평 부지에 건립된 교구청은 5층 크기에 연면적 1327평의 행정청사와 ㄷ자 형태로 연면적 1840평의 사제관으로 이뤄져 있다. 행정청사는 교구장 집무실을 비롯해 교구의 제반 행정 관리 사무실과 강당 등으로, 사제관에는

상주 사제 숙소(20개)와 손님 숙소, 휴게실과 체육실, 성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설계는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사는 대림산업이 맡았다.

새 교구청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의 피를 흘린 터전에 세워진 전동성당, 호남의 사도 유항겸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아들이자 동정부부인 유중철 요한·이순이 루갈다 등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는 치명자산과 함께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 삼각형 안에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역 한옥마을이 들어서 있다.

다음은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의 축사 내용이다.

#### 한홍순 회장, 전주교구 70주년 축사

«먼저 전주교구의 존경하는 이 주교님, 제 위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께 교구 설정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해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구청사를 온 교구민이 하나되어 하느님께 봉헌하시게 된 데 대해서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교구의 교구 설정 70주년은 비단 전주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주교구가 실로 꼭 70년 전 오늘 감목대리구에서 전주지목구로 설정되면서 한국인 성직자들이 교구 사목과 운영을 관장하는 한국 최초의 자치 교구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주교구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먼저 ‘호남의 사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종 유항겸 아우구스티노 회장, 그리고 순교자 윤지충 바

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열렬한 신앙이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하느님을 위해 이 땅에서 최초로 순교의 피를 뿌린 분들입니다. 유항겸 순교자는 가성직제도 시절 평신도의 성사집행에 의문을 품고 북경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선교사를 모셔오게 된 계기를 만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집안은 최초의 동정부부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의 아름다운 사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주 초남리와 치명자산, 천호 성지, 숲정이, 전동성당 사적지와 순교터, 등은 옛 신앙선조들의 숨결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참으로 전주는 여러 순교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을 배출한 순교자의 땅입니다. 이에 걸맞게 현대에도 많은 교우들이 순교 선열들의 유지를 받들어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실제 삶으로 증언하며”(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미사 본기도) “이 땅에 빛을” 밝혀 복음을 선포하며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전주교구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면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테르툴리아노)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처럼 멋진 교구청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1베드 2, 5)로서 유익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짐은 비단 전주 교구만이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에 커다란 동력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협 임원 개선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송상순 베드로, 담당사제 고병수 요한 신부)는 2월 10일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송상순 회장을 유임시키는 등 임원진을 확대 개편했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장시영(프란치스코), 송봉규(이시돌), 강정은(안셀모), 현임종(스테파노), 여종화(이냐시오), 김창유(아우구스티누스), 김항원(아타나시오)

회장: 송상순(베드로)

부회장: 김경환(베네딕토), 문덕영(알렉산더), 이성향(젬마)

감사: 오윤환(시메온), 김성택(토마스)

사무국장: 고영문(토마스 아퀴나스)

총무: 김대은(경환 프란치스코), 안창흡(프란치스코)

행사분과: 김영훈(요한), 김태인(마태오)

전례분과: 이철원(가롤로), 이성주(라파엘)

선교분과: 이남준(요한), 양경필(요셉) 교

육분과: 고광옥(디모데오), 장철호(노엘) 홍

보분과: 김원민(골롬바노), 김영환(베드로), 이

창준(시몬) 사회복지분과: 김태우(야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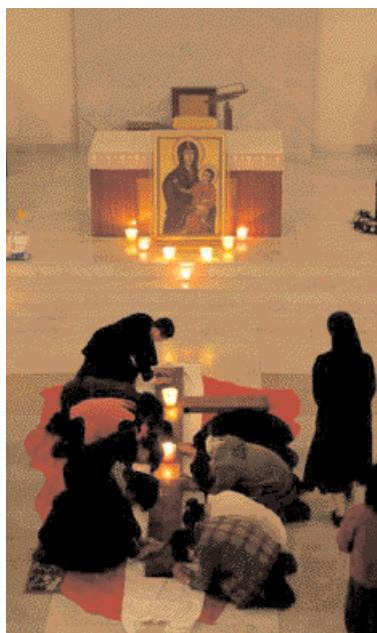
강으리(렛다) 환경분과: 조영우(토마스 모

에), 김승호(암브로시오) 청소년분과: 고용

찬(베드로), 윤태선(도미니코) 가정분과: 홍종석(안젤로), 김익상(가브리엘) 여성분과: 김원자(로즈마리), 이춘심(정혜 엘리사벳)

### ● WYD(세계 청년 대회) 십자가 · 성모성화 이콘 순례

제21차 세계청년대회(WYD 2008.7.15~20 호주)를 앞두고 전 세계를 순례하고 있는 교황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제주교구를 방문하는 날



▲ 이콘순례

온 교구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환영했다.

2월 21일  
(회심의 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십자가 (높이: 3.8m, 두께: 5cm, 무게: 31kg)와  
성모성화는

광양성당(주

임 양영수 신부)으로 이동해 신자들의 환영행사와 10시 미사에 참례한 후 낮 1시 30분 도보로 광양성당을 출발해 주교좌 중앙성당(주임임문철 신부)에 오후 3시 도착했다. 도착 즉시 지속적인 조배를 시작해 저녁 7시 30분 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주례한 채의 수요일 예식에 함께 했다. 중앙성당에서 하루를 묵은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2월 22일(주님의 날) 서귀포성당(주임 고남일 신부)의 십자가의 길 전례에 참

례했으며, 제1차 한국청년대회가 치러질 성 이 시돌 삼위일체성당을 경유해 오후 4시 30분 한림성당(주임 현경훈 신부)에 도착한 후 밤 10시 30분 용수성지에 있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까지 밤을 새우며 도보순례를 했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에서 이틀째를 보낸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2월 23일(파견의 날) 아침 7시 파견미사를 끝으로 제주에서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순례지인 의정부교구를 방문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재의 수요일 미사 강론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전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커다란 영광이다”라며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지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자”고 말했다.

### ●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제582차 월례회의, 제3대 단장 선출

제주교구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단장 이남준, 담당사제 고병수 신부)는 3월 31일 오후 3시 가톨릭회관에서 제582차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좌영임 제르마노(광양본당)씨를 제3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좌영임 단장은 광양본당 착한목자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제주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회계를 역임했고 현재 제주시 정결하신 정녀 꼬미시움 단장으로 재임 중이다. 좌단장은 ‘21

년째 활동하고 있는 레지오마리애 경험을 살려 단원교육, 간부교육, 단장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 레지오 교육을 변화시키고 레지오마리애 50년사를 임기 중에 발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 제주평협, 교구 성모의 밤 개최

제주교구 평협은 5월 17일 밤 9시 이시돌 삼위일체 아외성당에서 교구 성모의 밤을 개최한다. 제주교구 사목국(국장 고병수 신부)이 주최하고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교구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 교토(京都)교구의 교구장 오오츠카 요시나오 주교를 포함한 이들 방문단 18명이 참석하게 된다.

### 전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운동)

### ● 하루 마리아폴리 전국 13곳에서 개최

포콜라레운동(마리아사업회; 남자대표 칼로이 아단, 여자대표 엄선자 헬레나)은 4월 14일과 15일 이틀 사이에 “친교와 일치”를 주제로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등 전국 13개 장소에서 ‘2007 하루 마리아폴리’를 개최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린 이번 마리아폴리는 어둡고 분열된 사회에서 여러 연령층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보편적 형제애를 나누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목표를 두고 ◆포콜라레 영성 소개

◆ 예술의 시간 ◆ 담화와 경험담 발표 ◆ 공동체별 그룹 모임 ◆ 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KBS-TV가 몇 해 전에 방송한 “브라질의 빈민구제 운동 포콜라레” 현장 르포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이 운동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하루 마리아폴리에는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조규만 주교 등 모두 4명의 주교가 각각 해당 지역, 교구 모임에 참석해 미사를 봉헌했으며, 일부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군산에서는 개신교 목사가 자신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참석해 가톨릭 신자들과 대화와 친교를 나누며 교회 일치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각 지역 공공장소에서 열려 교회와 사회의 대화와 친교를 도모하기도 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공동체 회원들 사이에 일치가 놀랄 만큼 자라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주제 담화였던 “일치의 영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새 천년기’에서 언급한 “친

교의 영성”과 같은 것으로, 이를 실현하는 열쇠는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벼름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영남지역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주제로 4월 15일 대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경상남북도와 제주지역에서 970여명이 참석해 일치의 영성에 대한 담화와 사랑의 기술에 대한 경험담 등을 통해 관심 있는 이들이 포콜라레운동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 ● 사랑의 소도시 건설을 위한 포콜라레 바자회 열려

포콜라레운동은 소도시 건설을 위한 바자회를 5월 24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오전 10시 미사로 시작되는 이번 바자회는 포콜라레 회원과 일반 독지가들의 기증품 등으로 이뤄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서로가 먼저 사랑하는 ‘주는 문화’의 삶을 실천해 참다운 인간 삶의 모형을 제시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의 유언(요한 17, 21)처럼 하나 되는 일치된 세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소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소도시 건설은 어느 독지가가 중부지방의 일부 야산을 기증한데서 출발했다.

1950년대 여러 사회 계층과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함께 모여 포콜라레 일치의 생활을 더 깊이 살고자 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작은 도시’를 이루게 되었고, 이를 마리아폴리(‘마리아의 도시’라는 뜻)라고 불렀다. 포콜라레운동 창시자 끼아라 루빅은 이 특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속하는 마



▲ 사진은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서울 서초·강서·양천 지역 하루 마리아 폴리에서 젠(Gen: 포콜라레 운동의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리아폴리'가 태어나기를 염원했다. 그 후 1964년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 첫 '소도시' 로피아노(<http://www.loppiano.it>)가 세워졌고, 현재 전 세계 35곳에 크고 작은 규모의 포콜라레 '소도시'가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지에 있는 '소도시'에는 포콜라레 운동의 '공유 경제' 계획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함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 2006년도 2차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

한국가톨릭병원협회(회장 최영식 마티아 신부) 회원병원에서 선발된 2006년도 성마리아 병원 연수생 2진(강남성모병원 배성미 간호사 외 2명)이 '07.2/22(목)~3/3(토) 10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시작했다.

주요 연수내용은 성마리아병원 원내 시설견학과 병원 소개, 회원병원 소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하우스 텐버스 관광, 약품, 안전관리와 CT, 3D-CT 및 방사선치료, 7진 종합검사, PCR를 이용한 미생물 분류 검 및 병원내 직무연수 등이다. 연수생들은 짧은 일정이지만 프로페셔널하게 근무하는 성마리아병원 직원들과 의약, 화학, 의학검사 등 각 분야의 경험으로 업무적 성과가 예상된다. 본 연수는 매년 한 일교류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례사업으로 제1진 연수파견은 2006년 8월 24일(목)~9월 2일(토)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됐다.

2007년 연수 파견은 제1진(간호사) 8월 2일~11일, 제2진(약사, 의료기사) 2008년 2월 14일~23

일로 각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예정이다.

##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 연수개최

한국가톨릭학교장회(회장 김봉학 바오로 신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소재 씨튼 영성의 집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 이틀째인 5월 31일에는 논산시 동화동 소재 논산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가톨릭학교는 침체된 한국교육의 희망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총무 김용태 요셉 신부) 특별세미나에 참여하게 된다.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 제 2차 꾸르실료 발상지 도보성지순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주간 심재기 바오로, 담당사제 서유석 사도요한 신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제 2차 꾸르실료 발상지 도보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파티마 일정과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로마



▲ 꾸르실료 성지순례단

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순례에는 담당 사제 서유석 사도요한 신부와 심재기 바오로 주간 외 41명으로 구성됐다.

### ● 제 4차 주간단 모임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제4차 전국 주간단 모임이 4월 28일(토) ~ 29일(주일) 대구시 남산동 대교구청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대구 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이 주관했다.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최덕기 박으로 수원교구장 주교의 각별한 관심 속에 열린 이날 시그니스코리아 수원 창립행사는 저녁 7시 30분 최덕기 주교 주례로 김민수 신부 등이 함께 한 미사에 이어 단기수여식, 축사, 환영사, 수원회장 인사, 단체사진, 참석자 소개,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민재 레오(온미디어)씨를 시그니스/K 수원 임시회장으로 뽑았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교구(한강 이남 경기도) 관할지역의 직장에 근무하는 교우와 예비자(예: KBS 수원 드라마센터, 분당 온미디어, 안양 티브이로드, 경기방송 등)인 정회원과 서울 등 인근 교구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교구 소속본당 교우(예: 서울 KBS, MBC에 근무하면서 광명, 분당 등 거주 교우)들인 명예회원, 그리고 시그니스 임원과 회원, 수원교구 가톨릭 언론인 교우들이 참석했다.

현재 시그니스 코리아(SIGNIS KOREA) 중앙본부는 최덕기 박으로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주교와 김민수 이냐시오 매스컴위원회 총무신부(명동개발특별위원회 총무전담신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전주 등 각 교구청별로 조직화돼 있으며 해당 교구의 가톨릭신자로서 방송(지상파,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영상, 영화, 홍보, 광고, 미디어교육, 애니메이션, 사진, 매스컴분야 학계 등 매스미디어분야에 종사자들이 참여해 그 활동도 활발하다.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 제16기 가톨릭 언론인신앙학교 개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홍 베드로, 담당사제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는 제 16기 가톨릭 언론인 신앙학교(2007년 1학기)를 3월 28일 명동성당 교육관 지하1층 교리실에 개설해 11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강의하고 있다. 혀영엽(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신부와 박영호(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신부, 이동익(가톨릭대 교수) 신부 등 10명이 강의를 맡고, 6월 13일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가 종강 미사를 봉헌하면서 수료식을 갖는다.

### ● ‘시그니스 코리아 수원’ 창립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의 회원 단체인 시그니스 코리아(SIGNIS KOREA; 한국가톨릭영상방송언협회, 회장 오광성 프란치스코, 담당사제 김민수 신부)는 4월 17일(화) 오후 수원시 정자동 소재 수원교구청 성당과 강당에서 ‘시그니스 코리아 수원’을 창립했다.

### ● 한국 가톨릭 신문 출판인 협회 (UCIP/KOREA) 피정

역시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회원 단체인 한국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UCIP 코리아; 회장 황진선 대건안드레아 서울신문 부국장, 담당사제 김민수 신부)는 4월 20일(금)~21일(토) 안양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연례피정을 가졌다.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와 서울대교구,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시그니스 코리아(SIGNIS/K)가 후원 이번 피정에는 80여명의 매스컴 종사 가톨릭 교우와 예비신자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행복한 인생”이란 주제로 강의한 성 바오로 수도회의 백기태 암브로시오 신부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영혼의 시선을 가져야 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 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은 행복이라는 것이며, 고통과 시련에도 의미가 있고 행복과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백신부는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고통은 그때부터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담당사제는 “문화와 영성”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삶과 신앙이 분리돼 있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반목과 질시가 적지 않은데, 주변 사람을 칭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고 칭찬을 하면 상대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되며,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구별하거나 차별 짓지 말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존재로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 한 김신부는 베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을 예로 들어 소통의 단절은 죄악이라고도 말했다.

최덕기 주교는 파견 미사에서 신문, 출판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하느님 말씀이 더욱 자라나도록 해야 하고, 사회 복음화를 위한 선구자 역할을 당부했다.

로마에 본부가 있는 신문출판인협회(UCIP코리아)는 시그니스코리아와 상호 관련을 맺고 가톨릭 미디어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인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홍 베드로 KBS 부사장)가 서울대교구 평신도 단체로 있으며 포럼, 신앙학교, 언론인의 밤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SIGNIS코리아, UCIP코리아의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제33차 정기총회 와 25차 연수회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오덕주 데레사, 담당사제 민병덕 비오 신부)는 제33차 정기총회와 25차 연수회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소재 성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서울대교구 권경수(헬레나) 회장을 선출하고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기로 했다. ‘평화를 일구는 여성’을 주제로 열린 연수에서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의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조옥라(데레사, 서강대 사회학) 교수의 주제발표와 각 교구별 토의, 총회로 진행됐다. 조옥라 교수는 “각자 속한 신심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가톨릭 여성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사회와 교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가톨릭 여성의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총회에서는 2년 임기의 회장단 개편에서 부회장에 원주교구 송영순 클라라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에는 마산교구 김우매 요안나 회장과 청주교구 이덕순 로사리아 회장을 뽑았다.

겠습니다.”라고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 ● 레지오 마리애 단가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단장 박기탁 사도요한, 담당사제 최홍길 레오 신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일) 오후 2시부터 대구대교구 교구청 교육원 강당에서 레지오 마리애 단가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단원들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오는 6월 6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대구대교구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앞두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행사이기도 했다.

레지오 마리애 단가경연대회는 꼬미시움별 혹은 본당별로 협조단원 이상의 순수한 레지오 단원들로만 성가대를 구성하여 레지오 마리애 단가와 성모님에 관한 자유 성가곡 1곡을 경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2시간여에 걸쳐 효목, 태전, 고성, 대덕, 범물, 두산, 월성, 경주 성동, 용계, 평리, 옥수, 삼덕, 대안, 대봉, 계산, 포항 죽도, 성주성당의 17개 팀에서 622명의 단원들이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응원단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의 단원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파견미사 중 영성체 후에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해도 세나뚜스 부단장, 박장원 전임 레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 세나뚜스 간부 선출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담당사제 윤병길 세례자 요한 신부)는 제334차 월례회의에서 3년 임기가 끝난 4간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결과 단장에 팽종섭 단장이 재선출됐고 부단장에는 전 서기 한관섭 미카엘씨가, 서기에는 송파 ‘천주의 성모’ 꼬미씨움 단장 정지오 세례자 요한 형제, 회계에는 한희운 아녜스 자매가 재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간부들은 “단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지아와 꼬미씨움을 세나뚜스와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선출해주신 평의원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계부분이 보다 더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노력하



▲ 단가경영대회에서 각 본당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지아 단장, 방경홍 세나뚜스 통신원, 이혁우 시몬 연합성가대 지휘자, 임경미 연합성가대 반주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봉(대상), 대덕(금상), 두산(은상), 삼덕(동상)본당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성주와 포항죽도 본당은 심사위원 전원의 요청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나머지 출전 팀도 각기 신덕상, 망덕상, 애덕상, 순결상 등을 수상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에 출전한 단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연습을 거쳐 레지오 마리애 50주년 신앙대회의 연합성가대를 결성할 예정이며 수상한 네 팀은 신앙대회 제 3부에서 특별공연을 할 계획이다.

## ● 선산성당에서 제 2차 순회 사료전시회 개최

대구 레지오 마리애 기념 제 2차 순회 사료전시회가 지난 4월 22일(일)부터 4월 26일(목) 까지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주최, 선산 ‘인자하신 동정녀’ 꾸리아(단장 김명희 율리아나, 지도신부 태진석 요한) 주관으로 선산본당 강당에서 개최됐다. 선산본당 레지오는 공소시절인 1957년 4월 28일 ‘착한 의견의 모친’ 프레시디움.(초대 단장 이장덕 베드로)이 설립

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선산 ‘인자하신 동정녀’ 꾸리아는 1970년 7월 5일 설립됐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세나뚜스 소장 사료 이외에 선산성당 레지오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아치에스, 야외행사 등의 행사사진과 본당 관련 사진자료, 착한 의견의 모친 프레시디움. 1차사업보고서 등 레지오 초기사료, 교구장 수여 근속상 등 상장, 상패 다수, 하늘의 문 꼬미



▲ 순회사료 전시회 기념사진

시움 등  
에서 수  
발한 공  
문서 종  
류 등의  
사료도  
함께 전

시되었다. 제3차 순회사료전시회는 5월 13일(일)부터 5월 18일(금)까지 김천 평화성당에서 열린다.

## ● 전임 교구평의회(레지아) 단장 간담회 개최

대구 세나뚜스는 전임 레지아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원로 단원들을 초청해 4월 20일 삼덕성당 내 50주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정숙 단장을 제외한 김정윤 토마스, 손인호 프란치스코, 박장원 아오스딩, 문만화 베드로 단장 등이 참석해서 이해도 안젤로 세나뚜스 부단장으로부터 그동안 실시한 50주년 맞이 각종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었으며 이범식 미카엘 국제서기가 범 프로젝트로 일련의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사진 설

명을 곁들여 보고했다. 현재 레지오 마리애 월간지의 현 실태와 처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었다.

2단계 34차 교육은 포항 대해 꼬미시움(단장 권영홍 요한, 지도신부 이형문 안토니오) 소속의 8개 본당 1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 ●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 대회 준비를 위한 세나뚜스 주관 뾰레시 디움 단장(준비위원)교육실시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준비를 위한 대구 세나뚜스 주관 뾰레시디움 단장(준비위원) 교육이 3월 19일(월), 4월 2일(월)과 4월 16일(월)에 삼덕성당에서 각각 개최됐다. 3월 19일(월) 계산, 태전, 평리, 산격 꼬미시움 소속 프레시디움 단장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에 이어 4월 2일에는 경산, 두산, 범어, 수성, 영천, 용계, 옥수, 효목 꼬미시움 소속 프레시디움 단장들이, 4월 16일에는 감삼, 대덕, 상인, 성서, 월성 꼬미시움 소속 프레시디움 단장들이 교육을 받았다.

### ● 2단계 34차, 1단계 117차 단계교육 성료

대구 세나뚜스는 단계교육 2단계 34차 교육을 4월 14일(토) ~ 15일(일) 포항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1단계 117차 교육을 4월 21일(토) ~ 22일(일) 연화리 피정의 집에서 각각 실시했다.



▲ 2단계 34차 교육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 ● 제 10차(구미지역) 레지오 마리애 학교 수료식과 수료미사

제10차(구미지역) 레지오 마리애 학교 수료식 및 수료미사가 4월 23일(월) 오후 7시부터 구미 도량성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교에는 구미지역의 도량 꼬미시움과 원평 꼬미시움 소속의 465명의 단원들이 수강 신청하여 404명의 단원들이 수료했다. 지난 3월 5일(월)부터 8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이해도 안젤로 세나뚜스 부단장, 김성일 바오로 세나뚜스 서기, 이범식 미카엘 세나뚜스 국제서기, 박장원 아오스딩 전 레지아 단장, 조영준 마르티노 세나뚜스 교육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서 ‘교본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레지오 사도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했다.

## 동 정

### ● 원주평협 윤봉옥 회장 장녀 결혼

윤봉옥 요셉 원주교구 평협 회장은 4월 14일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장녀 형주 안나 양의 혼인성사를 통해 사위(최봉근 가브리엘)를 맞아 들였다.

### ● 서울가톨릭사진가회 임효철 회장 사진 전

임효철 프란치스코 서울가톨릭사진가회 회장은 5월 14일~19일 서울 중구 충무로 싸이드 립 포토 갤러리에서 미리내 성지 사진전시회를 연다. 그동안 멀리 중국 소팔가자와 상하이 김가항 성당까지 순례하며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의 발자취를 쫓아 사진에 담아온 임회장은 이번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있는 미리내 성지에 국한해서 김대건 신부의 체취를 아름다운 주변 풍경에 담아 표현한 50점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 ● 서울평협 박상조 정의평화위원장 평화 신문에 특별기고

박상조 시몬 서울대교구 평협 정의평화분과 위원장(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은 평화신문 4월 22일자(917호)에 “특별기고 – 과도한 보수는 정의에 부합하나”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박위원장은 이 기고문에서 “사회 윤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의 문제(「노동하는 인간」 19항)”라고 말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법칙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어머니요 스승」 18· 68항),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며(「사목헌장」 67항),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란 가정을 꾸려 적절히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가정의 장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 한국평협 사무국 주5일 근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1일부터 사무국의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업무를 겸하고 있는 서울 평협 사무국도 주5일 근무로 실시하고 있다.

## ● 평협소식 제 9호 원고 모집

한국평협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유연재)는 「평협소식」 제 9호에 실을 각 교구평협과 전국 사도직단체에서 실시한 5월~6월 행사와 활동 등에 대한 소식 · 임원동정 기사를 6월 말까지 평협 사무국(clak@catholic.or.kr)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 세계교회 소식

### 〈교황님의 가르침〉

#### 베네딕토 16세 부활 제5주일 삼종기도 강론(전문)

2007. 5. 6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5월 6일 성모성월을 맞아 초대 교회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성모 마리아와 일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교황은 이날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한 성 베드로 광장 정례 삼종기도 연설을 통해 부활시기와 겹치는 5월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신 마리아를 묵상하는 데에 아주 좋은 계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강론 전문을 평협이 번역한 내용이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며칠 전에 5월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이달을 성모님 달로 지냅니다. 이달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심성월이 되었고 사목자들은 강론과 교리교육과 공동체 기도를 하기에 매우 적절한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 후 성모공경 예절은 크게 쇄신되었습니다. 5월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활시기와 겹치는 시기로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던(사도1, 12-14참조)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매우 알맞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달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이신 그분을 용기 있고 기쁘게 선포하고 중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모님과 일치해서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는 5월 9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사도적 여행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성모 마리아께 의탁합니다. 존경하는 제 선임자들이신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신 것처럼 저는 아파레시다(Aparecida) 시의 같은 이름을 지닌 매우 중요한 성모성지에서 다음주일에 시작하게 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주교회의 제5차 총회의 개막을 주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저는 인근의 대도시 상파울루에 가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과 주교님들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산타 안나 갈바웅의 복자 프라 안토니오를 성인의 반열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행이 저의 첫 라틴 아메리카 사목방문이며 저는 라틴아메리카 대륙과의 만남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륙에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젊은이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륙은 ‘희망의 대륙’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아메리카와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인 것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도적 순례를 위해서, 특히 제5차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주교회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제자요 선교사로 여기도록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은 많고도 다양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의 ‘누룩’으로 그리고 우리 세계의 성덕의 ‘빛’으로 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